



발행인 허재준
편집인 진성진
편집교정 이승주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202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6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I. 2025년 노동시장 개관

2025년 1~10월 평균 취업자는 19.3만 명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5.2만 명까지 축소됐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확대되며 3분기에는 21.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 고용률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5~64세 고용률은 2·3분기 모두 70%를 넘겼다. 실업률은 늘지 않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소폭 줄었다. 이러한 지표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추세로 평가된다.

2025년 고용은 최근 추세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의 고용 상황이 남성에 비해 양호했다.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반면, 여성 비중이 큰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 부진과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청년층은 초대졸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 | 1~10월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취업자 | 336 | 184 | 193 |
| 실업자 | -64 | 29 | -2 |
| 비경활 | -129 | -47 | -4 |
| 고용률 | 0.5 | 0.2 | 0.2 |
| 실업률 | -0.2 | 0.1 | 0.0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SIS.

이 부진하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하반기 들어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나마 줄었다. 서비스업 고용 상황은 산업별로 상이하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9월부턴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3분기 들어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양호한 고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양적 측면에서의 고용 개선

여성 고용은 양호한 반면,
남성 고용 부진 지속

인구 비중이 청년층에서만 증가했다. 청년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가 늘었다.

아래에서는 부문별 노동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취업자 동향을 연령대, 종사상 지위, 산업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 후 미취업자 동향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점검한다. 결론에서는 2025년 노동시장 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 고용 전망을 제시한다.

II. 2025년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청년층 고용 부진, 고령층 고용 확대

청년 고용 부진 지속

20대 청년 고용의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뒤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 취업자는 1~10월 평균 17.1만 명¹⁾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 중 상당 부분은 인구 효과(-11.2만 명)에 의한 것이다. 다만, 고용률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인구 효과만으로 청년 고용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20대 세부 연령별 취업자 변화가 어떤 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우선 20대 초반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재학생 취업자 감소가 컸다. 20대 후반에서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고용이 부진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20대 후반

취업자·상용직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청년 고용이 가장 부진했다. 20대 초대졸 고용률이 3.3%p 줄었다. 남성 초대졸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성 초대졸 취업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졸 이상 청년 고용률은 1분기까지는 줄었으나, 2분기 이후 증가 전환됐다. 도소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대졸자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30대 취업자는 10.7만 명 늘었고 고용률도 0.8%p 증가했다. 이러한 호조는 30대 여성 고용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20년 61% 수준에서 2025년 10월 기준 73.9%까지 증가했다. 반면 30대 남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 30대 남성 고용률은 여전히 감소 중이며, 취업자 수는 표면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인구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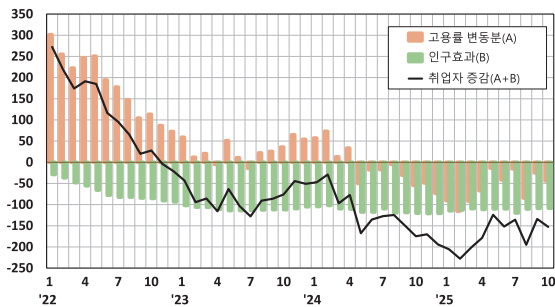
30대 여성 취업자는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증가분 대부분은 상용직·36시간 이상 취업자에 해당한다. 30대 남성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건설업과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감소했다.

40대 고용은 겉으로 보이는 취업자 감소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취업자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5.6만 명 줄었으나, 인구 효과

여성 중심의 30대 고용 증가

[그림 1] 2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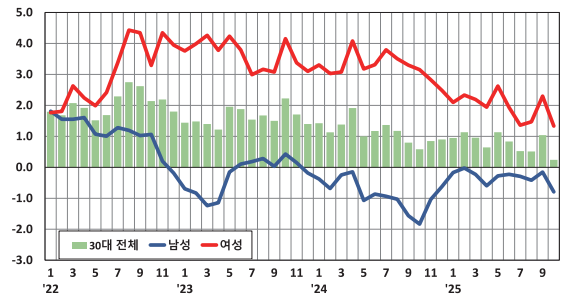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30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후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2025년 1~10월 평균 증감을 의미한다.

(-11.5만 명)를 제외하면 오히려 증가했다. 인구 감소 폭이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고용률은 0.8%p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견줘봐도 더 나은 수준이다.

40대도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남성 고용률은 3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연내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늘었고, 남성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서 감소했다.

50대 고용은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나타났다. 취업자는 3만 명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며, 분기별로 보면 2분기 -4.5만 명에서 3분기 -3.3만 명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인구 효과를 제외하면 3분기부터는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됐고, 고용률도 2분기 -0.2%p에서 3분기 +0.1%p로 개선됐다.

50대 고용의 완만한 개선 흐름은 성별과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50대 남성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성은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커졌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올해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취업자가 35.6만 명 늘었고, 고용률도 0.9%p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인구 효과만으로 취업자가 17.9만 명 증가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추정되는 취업자²⁾는 8.4만 명 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고령층 고용 증가는 여전히 가장 큰 수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층 고용이 활발하다.

고령층에서도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호조를 보였다. 남성 취업자 증가(15.5만 명) 상당 부분은 인구 효과(10.9만 명)에 기인한 반면, 여성은 인구 효과를 제외하고도 취업자가 12.7만 명 늘었다.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추정된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남성 고령층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직·36시간 이상 근무·생산직에 해당한다.

2. 상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

상용직 취업자는 29.4만 명 늘어 지난해 증가폭을 넘어섰다. 반면 임시직은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3분기에 다소 확대됐다.

상용직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20대, 30대에서 지난해 감소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가(간호 및 의료 인력 포함)가 다시 증가했고, 고령층에서는 돌봄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늘었다. 한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3분기 들어 상용직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상용직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임시직은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임시직이 감소했다. 도소매업 임시직은 상반기 큰 폭으로 늘었지만 3분기 증가세가 둔화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임시직도 상반기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3분기에는 감소폭이 커졌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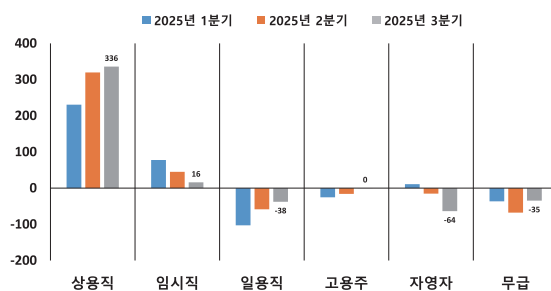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50대 고용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의 상용직 증가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65세 이상·17시간 미만 근무·임시직·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를 의미한다.

건설업 일용직 감소 지속

으로 임시직 증가가 지속됐다.

일용직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용직 변화는 대부분 건설업 고용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 건설업 일용직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25년에도 전 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일용직 감소가 이어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자영자)는 농림어업에 집중됐다. 이 산업에서만 7.3만 명 줄어 전체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자영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산업에서도 자영자 고용이 크게 악화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농림어업 중심으로 감소했다. 결국 농림어업의 영향을 제외하면 비임금근로자 고용 전반에서 뚜렷한 부진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7.7만 명 감소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올해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행정통계」에서도 제조업 고용 감소가 약 2년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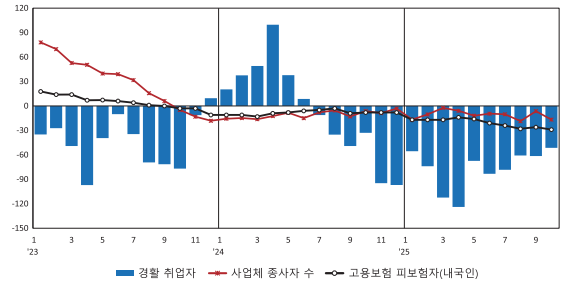
올해는 제조업과 관련된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못했다. 국내 수요 부진으로 내수 출하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됐다. 제조업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증대로 구인 수요가 감소했고, 임시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내수 출하가 증가하고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됐다. 부정적 여건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고용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도체 부문 수출 실적 부진은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다.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고용이 장기간 감소해 온 섬유, 의복, 가죽, 기타제

품 제조업,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제조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1차 금속 제조업은 지난해부터 건설 경기 부진 심화,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올해는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수준의 관세까지 부과되며 어려움이 가중됐고, 고용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도 경기 부진,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국내의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큰 폭의 수출 감소는 없었다. 다만 연중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고용 증가는 다소 둔화됐다. 반도체는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좋았다. 반도체 제조업은 업황에 따라 고용을 큰 폭 늘리는 업종이 아니며, 타업종으로의 고용 유발 효과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호실적이 전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가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4. 건설 고용 감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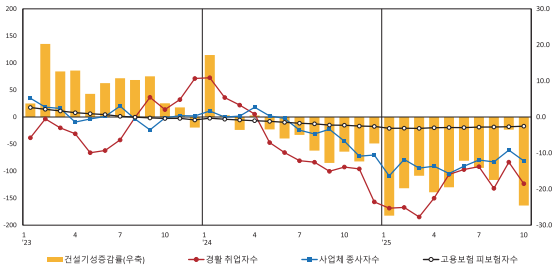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는 약 13만 명 감소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취업자 감소 규모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임시·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에서도 감소했다. 사무직이 감소함과 동시에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건설 현장 인력 상용직도 감소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건설업 종사자 수도 올해 들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거시경제 여건 악화, 업종 간 생산·수출 실적 편차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도 큰 폭의 감소 지속

[그림 5] 건설업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공사업 모두 종사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약 2만 명 감소했다.

건설업 고용 감소 확대는 건설업 경기 부진 장기화 영향이다. 건설기성은 올해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 공종별로 건축 기성액 감소가 지속됐고, 일반토목과 플랜트 부문에서도 공사가 크게 줄었다. 일감 부족이 건설 노동 수요 축소로 빠르게 반영되면서 건설업 고용은 이례적인 감소폭을 기록했다.

5.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는 49.1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보다 25.1만 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은 여성 중심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다. 남성은 도소매업, 공공행정 등에서 소폭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도 전 산업 증가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추정되는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건업으로 추정되는 간호 및 의료인력에 해당하는 20~30대·전문직·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꾸준히 고용이 증가했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25년 하반기 들어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최근 건설업 및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무 및 전문적인 업무를 맡는 취업자 중심으로

<표 2>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 | 2024년 1~10월 | 2025년 1~10월 | 성별 | |
|-------------|-------------|-------------|-----|-----|
| | | | 남성 | 여성 |
| 서비스업 전체 | 239 | 491 | 190 | 301 |
| - 도소매업 | -55 | -7 | 24 | -31 |
| - 운수창고업 | 62 | 8 | -12 | 20 |
| - 숙박음식업 | 27 | 1 | -15 | 17 |
| - 정보통신업 | 74 | 33 | 42 | -9 |
| - 금융보험업 | 14 | 45 | 19 | 26 |
| - 전문과학기술 | 62 | 70 | 57 | 13 |
| - 사업시설·지원 | -48 | -18 | 3 | -21 |
| - 공공행정 | 39 | 26 | 15 | 11 |
| - 교육서비스 | -12 | 49 | -2 | 51 |
| - 보건 및 복지 | 88 | 234 | 36 | 198 |
| - 예술, 스포츠 | 10 | 26 | 14 | 12 |
| - 협회, 기타 개인 | 0 | 17 | 15 | 2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부문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 | 2024년 1~10월 | 2025년 1~10월 | 취업자 수 | |
|-----------|-------------|-------------|-------|-------|
| 보건 및 사회복지 | 88 | 234 | 3,187 | |
| 연령대별 | 15~29세 | -52 | 24 | 404 |
| | 30대 | -13 | 49 | 491 |
| | 40대 | -22 | 14 | 511 |
| | 50대 | 43 | 2 | 645 |
| | 60대 | 60 | 47 | 538 |
| | 70세 이상 | 72 | 99 | 597 |
| 직종별 | 전문직 | -42 | 90 | 1,442 |
| | 서비스직 | 48 | 64 | 820 |
| | 단순노무직 | 80 | 60 | 607 |
| 종사상 지위별 | 상용직 | 7 | 117 | 2,172 |
| | 임시직 | 83 | 124 | 928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난해 대비 남성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여성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이 장기간 감소 중이던 도소매업은 판매직 중심으로 일부 회복하고 있다. 운수창고업 고용은 자영업자보다 실버 택배에 종사하는 고령층·상용직·단순노무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5~7월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9~10월 들어 7만 명 대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도 최근 회복세에 있다. 같은 대면 서비스업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역시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건 관련 취업자 모두 증가

정보 및 전문서비스 고용 둔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진작 정책 영향으로 하반기 대면서비스 고용 증가

9월 들어 고용이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 진작 정책 등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던 업종이다. 2025년 2월부터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최근 취업자 증가로 전환됐다.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뿐만 아니라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운전, 운송 관련 기능·조작 업무를 맡는 취업자가 늘어났다.

6.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가 전환

청년층에서 실업률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2.7%이다. 실업자 수는 소폭(0.2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반면 3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실업률이 감소했다. 40대는 기저 영향으로 3분기에 실업률이 증가로 전환됐다.

실직 1년 미만 실업자가 종사했던 전직 산업을 살펴보면, 전직 제조업 실업자 수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 영향으로 2025년 3분기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전직 건설업 실업자와 연관 업종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상반기 소폭 증가했으나, 하반기 감소로 전환됐다.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가는 주로 취업자 감소 영향

전체 확장실업률은 0.2%p 감소했다. 반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0.5%p 증가했다. 청년층에서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의 증가(+0.1%p)와 취업자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축소(+0.7%p) 영향으로 확장실업률이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발

<표 4> 전체 및 청년층 확장실업률 요인 분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전체 | | 15~29세 | |
|------|-------------|-------------|-------------|-------------|
| | 2024년 1~10월 | 2025년 1~10월 | 2024년 1~10월 | 2025년 1~10월 |
| 전체 | -0.3 | -0.2 | -1.2 | 0.5 |
| 잠재경황 | -0.4 | -0.1 | -1.3 | -0.3 |
| 추가취업 | 0.1 | 0.0 | -0.2 | 0.1 |
| 실업자 | 0.1 | 0.0 | -0.2 | -0.1 |
| 취업자 | -0.1 | -0.1 | 0.5 | 0.7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40대 여성은 육아·가사 인구가 줄어들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7. 30~4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인구 증가 영향으로 늘어났지만, 인구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 20대는 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영향이다. 30대와 40대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성별, 연령별로 활동상태 변화에 차이가 있다. 20대는 남녀 모두 '쉬었음' 비중이 증가했다. 30대와 40대는 여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육아·가사'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다. 50대는 남성에서 '쉬었음' 인구 비중이 증가했지만 여성에서는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연로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나이를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고령층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표 5> 연령별 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중 증감(2025년 1~10월)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전체 | 0.6 | -0.7 | -0.8 | 0.0 | -0.8 |
| 육아·가사 | -0.2 | -0.8 | -0.9 | -0.2 | 0.0 |
| 통학 | -0.2 | 0.0 | 0.0 | 0.0 | 0.0 |
| 취업준비 | 0.3 | 0.0 | 0.0 | 0.0 | 0.0 |
| 쉬었음 | 0.6 | 0.1 | 0.0 | 0.2 | 0.1 |
| 연로 | - | - | - | - | -0.8 |
| 기타 | 0.1 | 0.0 | 0.0 | 0.0 | -0.1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25년에도 증가했다. 다만 분기별 '쉬었음' 증가폭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연령별로 20대, 50대,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대 '쉬었음'은 2025년 3분기 감소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쉬었음' 증가폭은 고령층 인구 증가폭에 비해서 크지 않다.

20대 '쉬었음'은 3분기 감소로 전환

2026년 취업자 21만 명 증가
전망

III. 2026년 고용 전망

2026년 노동시장은 2025년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상향된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KDI 역시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다. OECD(2.1%)와 IMF(1.8%)도 올해보다 나은 내년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업황 전망이나 노동공급 요인이 일부 변수를 만들지만, 성장률이 높아지면 대체로 노동시장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즉, 올해보다 나은 경제 상황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증가폭은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전반의 건조한 고용 증가가 뒷받침된 결과이다. 2026년에도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업황 회복 여부는 별개로 고용 지표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역장벽 강화 및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의 하방 위험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노동시장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노동시장 전반을 고려할 때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026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2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취업자 증가폭(약 20만 명 전망)과 유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올해보다 나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인구 효과의 변화, 정부 직접일자사업 참여자 증가, 산업별 고용의 메가트렌드 지속이 꼽힌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로 인해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5세 이상 인구는 16만 명 증가했다. 내년에 증가폭이 18.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인구 효과로 인해 올해 나타난 취업자 감소(-2만 명)가 내년에는 사라질 전망(±

0명)이다. 인구 증가의 상당분이 고령층이라고 할지라도, 고령층 노동시장 진출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기 때문에, 인구 효과로 인해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

직접일자사업의 실질 투입 규모는 내년도에 증가할 예정이다. 직접일자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일자사업 참여자는 그동안 고용통계에 약 70% 수준만 반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반영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6년 예정된 사업 참여 인원은 약 92만 명이다. 최근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중 약 74만 명이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련 취업자를 올해 69만 명에서 약 5만 명이 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6년에는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관련 예산 증액(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일자리의 고용 증가 효과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세는 올해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의 고용 호조라는 주요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25년과 비교하면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올해 고용이 너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업황 회복 시점과 무관하게 기저효과에 따라 고용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서비스업은 하반기 들어 본격화된 정보통신·금융·전문과학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수 있으나,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실제 취업자 증감은 여러 위험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으로는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 확대, 방한 외국인 증가세 지속 등이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고용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원화 가치 하락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을 저해할 수 있고, 건설 원가 상승을 초래해 건설업 고용 회복도

서비스업 위주 고용 증가
지속 전망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 재부각,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속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 기조 장기화 등은 내년 취업자 증가폭을 예상보다 낮출 수 있는 부정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

직접일자리 관련 고용 증가 전망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구조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 및 업황 개선이 산업 전반의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숙련 전수 체계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 여건 안정을 위한 거시정책 조정과 함께, 지역·업종별 고용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직무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전환훈련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구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종합하면, 경기 요인과 산업구조 변화, 기술혁신 속도까지 고려한 노동시장 대응 체계의 정교화가 내년 고용 안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표 6〉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연간 고용 전망

(단위: 천 명, %)

| | 2025 | | | 2026p | | |
|-------|--------|--------|--------|--------|--------|--------|
| | 상반기 | 하반기p | 연간p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취업자 | 28,631 | 28,923 | 28,777 | 28,850 | 29,123 | 28,987 |
| (증가율) | 0.6 | 0.8 | 0.7 | 0.8 | 0.7 | 0.7 |
| (증감수) | 181 | 221 | 201 | 220 | 200 | 210 |
| 실업률 | 3.1 | 2.5 | 2.8 | 3.1 | 2.5 | 2.8 |
| 고용률 | 62.6 | 63.2 | 62.9 | 62.9 | 63.3 | 63.1 |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